

| 사회적 대화 현장 |

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회적 대화로 전환기 극복하자”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사회적 대화 중요성 강조

박석모 <참여와혁신> 기획이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9월 4일 열린 364회 정기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의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적 대화만이 전환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 왔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완전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이해찬 대표의 연설 중 사회적 대화를 언급한 부분이다

대전환의 두 번째 과제는 민생 부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변화는 국민의 삶 곳곳에 고통을 불러오지만 지금 상황을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뿐입니다.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전환기를 극복했습니다.

빈록 노총위원장의 결단이 네덜란드의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0% 이상이던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정부는 사회보장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노조와 기업, 정부의 대타협으로 50% 선이던 고용률은 75%까지 늘려 재정 안정과 10년 이상 고성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길은 이미 열렸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 왔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부문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추가로 결합하여 발족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입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안전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때부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